

인류  
10주차 “관대한 용서”

누가복음 2:1-12

브래드 목사

마가복음 Mark 2:1-12

1.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2.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3.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4.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6.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12.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And when he returned to Capernaum after some days, it was reported that he was at home. 2 And many were gathered together, so that there was no more room, not even at the door. And he was preaching the word to them. 3 And they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men. 4 And when they could not get near him because of the crowd, they removed the roof above him, and when they had made an opening, they let down the bed on which the paralytic lay. 5 And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6 Now some of the scribes were sitting there, questioning in their hearts, 7 "Why does this man speak like that? He is blaspheming!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8 And immediately Jesus, perceiving in his spirit that they thus questioned within themselves, said to them, "Why do you question these things in your hearts? 9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10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paralytic— 11 "I say to you, rise,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12 And he rose and immediately picked up his bed and went out before them all, so that they were all amazed and glorified God, saying, "We never saw anything like this!"

누가복음 Luke 7:48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And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